



완도군이 지난해 10월 군청 광장에서 일선 민원부서에 전기자동차 전달했다.

완도군, 전기차 민간 보급사업 추진

완도군은 대기환경 개선 및 전기차 이용 촉진을 위해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군은 지난해 전기자동차 17대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26대를 보급하였으며, 올해는 전기자동차 22대(관용 10, 민간 12), 전기이륜차 1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올해 보조금을 차종별 최대 1,560만원, 전기이륜차는 35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전기자동차 성능이 개선되어 1회 충전 후 주행 거리가 300km 이상인 차량이 늘어남에 따라 충전기 18기(급속7, 완속11)를 설치·운영 중이다. 전기차 보조금 신청 자격은 완도군에 2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주민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우리 군에 위치하고 있는 기업·법인·단체이며, 자동차 판매 대리점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전남 완도=이제민 기자 wando1106@

청년농업인에 1.25억 투입... 지원 확대

안성농업기술센터, 전년비 78% 증액 안성시농업기술센터는 청년농업인 대상 교육 및 지원을 대폭 확대 할 방침 이라고 12일 밝혔다. 시 농업기술센터는 우선 4월 청년농업인(4-H회 가입회원) 대상 청년농업인 리더교육(스피치 및 PT교육 등)을 시작으로 2019년 청년농업인 발전 교육 및 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안성시 청년농업인 4-H회원은 약 74명으로 지난해 대비 40% 이상 증가했으며, 청년농업인 4-H회원 대상 시범사업은 총 1억2500만원(5개소)으로 도비 및 시비사업 증가로 작년 대비 78% 이상 증액이 증액됐다.

이경애 소장은 "청년농업인 4-H회원을 대상으로 철저한 수요조사를 통해 자격증교육, 스피치교육, PT교육, 작목교육을 진행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을 진행하겠다"며 "특히 스피치, PT 교육을 통하여 좋은 아이디어를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 공모 시범사업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관련 사업은 안성시 4-H회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가입 자격은 영농에 종사하는 40세미만의 안성시민으로, 가입은 안성시농업기술센터 귀농 육성팀으로 하면 된다.

안성=이보현 기자 bhlee7777@

부산시, 소상공인 경영아카데미 개최

25일부터 8월까지 총 5회 진행 부산시는 창업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올해 소상공인희망센터에서 '소상공인 경영아카데미'와 '소상공인 경영전략컨설팅'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아카데미는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5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첫 강좌에 이어 8월까지 총 5회에 걸쳐 열 계획이다. 이 강좌는 11개 분야의 전문 강사진을

배치해 ▲기업가 정신 ▲상권입지 선정 ▲온라인마케팅 ▲점포계약 및 세무 등 실천교육을 강화해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아카데미'는 지난해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등 201명이 수료하면서 교육 만족도가 85%에 달할 정도로 호응이 컸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경영악화 원인분석 및 단계별 정보를 제공하는 '컨설팅'도 추진한다.

부산=최인택 기자 remark@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7:25 | 해질 / 18:08

2월 13일(수) 음력 : 1월 9일

수도권 날씨 -5 ~ -2℃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지역별 날씨: 연천 -12/2, 동두천 -8/4, 가평 -10/3, 파주 -12/2, 서울 -5/2, 양평 -7/4, 인천 -5/1, 수원 -5/2, 용인 -5/2, 평택 -9/4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예타 3조 서남 관광벨트 활성화”

(예비타당성 조사)

김영록 전남도지사 “설전후 ‘천사대교’ 이용률 4.5만 관광 콘텐츠 개발로 홍보 힘써야”



하자”며 “특히 이런 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문화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관광 및 도정 이미지 홍보에도 힘써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특히 “정부의 예비타당

김영록 전남도지사(사진)는 12일 “천사대교와 목포 케이블카 개통 등으로 전남 서남권 관광산업의 도약 계기가 마련된 만큼 이같은 인프라를 바탕으로 콘텐츠 개발에 힘써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몰려올 수 있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실국장 정책회의를 통해 “설을 전후해 7일 동안 임시 개통한 천사대교의 이용 차량이 무려 4만5000여 대나 되고, 이 가운데 관광객이 65%를 차지해 예상보다 많았다”며 “3월 말 정식 개통되고, 목포 해상케이블카가 4월부터 운행하면 봄철 관광시즌과 맞물려 서남권에 많은 관광객이 집중해 관광 훈풍이 불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지사는 이어 “이 기회를 활용해 관광객 집중현상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도록 현장의 문제점을 분석해 조속히 보완

성조사 면제사업에 국도77호선 단절구간 인압해~화원, 화태~백야간 연결사업 등이 선정되고, 경전선 전철화사업이 예타 재조사 사업으로 명시돼 사실상 2조9000억 원의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며 “이는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사업의 동력을 확보한 것으로, 이번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사업이 예정보다 앞당겨 완료되도록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신안 하의도 등 국도2호선 단절구간 연결과 완도~고흥 간 해안관광도로, 이순신 호국벨트 등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2단계사업도 국가계획에 반영되도록 함께 노력해나가자”고 당부했다.

또 김 지사는 “광주형 일자리사업이

본격도에 오르면서 한국경제의 새 모델이 될 것으로 환영받고 있는 만큼, 도에서도 정부 일자리정책에 맞춰 전남형 일자리사업을 발굴해 새로운 미래 전략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며 “이러한 제조업의 토대 위에서 서비스산업과 관광산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자”고 강조했다.

한전공대 설립과 관련해 김 지사는 “세계적 공과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한전과 전라남도, 정부가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며 “우선 마스터플랜을 조기에 수립토록 하고, 정부에 요청할 부분이 있으면 도가 앞장서 실현되도록 하는 등 한 치의 오차도 없도록 추진해달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또 “설 연휴 기간 종합대책을 잘 추진해준 직원들께 감사하고, 특히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및 검역에 쉬지 않고 총력을 기울여줘 차단이 잘 이뤄졌다”며 “일정 기간이 지난 때까지 방심해선 안 되므로, 전남이 청정지역 위상을 지켜나가도록 계속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안=봉태경 기자 bcy2020@metroseoul.co.kr

기아차 광주공장, ‘무재해 목표달성’ 결의

공장장·임원 등 300여명 참석 무재해기 입장·결의문 낭독 등



12일 2019 무재해 목표달성 결의대회에서 박래석 기아차 광주공장장(앞줄 왼쪽 세번째)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안전 구호를 외치며 카드섹션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12일 현장 안전의식 고취를 통해 2019년 재해 없는 광주공장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무재해 목표달성 결의대회’를 실시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박래석 기아차 광주공장장을 비롯한 임원, 부서장, 그룹장 등 관리감독자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 2019년 무재해 안전사업장 구현하고 재해목표를 달성할 것을 다짐했다. 무재해 달성을 위한 무재해기 입장, 무재해 목표달성 결의문 낭독, 안전구호 제창, 무재해 목표 달성 결의문 서명순으로 진행된 이날 결의대회를 통해 기아차 임직원들은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일선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결의했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2019년 무재해 목표 달성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안전 기본수칙을 준수하며 중대재해를 예방한다 ▲작업장내 잠재위험을 발굴하여

안전사고 예방활동에 앞장선다 ▲나의 건강이 가족과 회사의 버팀목임을 항상 인지하고 관리한다 ▲원화청 공생 협력을 통하여 6대 핵심 안전수칙을 준수한다 ▲선제적 환경설비 구축을 통한 친환경 사업장 조성에 적극 동참한다 ▲노사 신뢰를 바탕으로 최고 안전한 광주공장 구축에 적극 앞장선다 6가지 항목에 대해 결의하고, 전 임직원들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이날 결의대회를 바탕으로 전 임직원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소공장별로 무재해 목표달성

결의문을 게시하고, 부서별로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통해 안전 결의문을 확대 전파해 나갈 계획이다.

기아차 관계자는 “안전은 수백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중요한 문제로 광주공장의 모든 임직원들이 안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함께 안전한 광주공장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결의대회를 실시하게 됐다”며 “금일 결의대회를 기점으로 현장에서부터 안전마인드 확립을 통해 재해없는 광주공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광주=봉태경 기자 bcy2020@

경기도, 외국인 관광객 유치 총력전

드라마 촬영지 등 257곳 상품 개발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도내 외국인 관광객을 늘리기 위한 유치 활동 강화에 나선다.

도와 공사는 한류 활용 관광상품 개발, 20~30대 개별관광객 공략을 위한 온라인·미디어 마케팅 강화, 교통 불편 해소 등 다양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 전략을 마련했다.

12일 도에 따르면 두 기관은 매력 있는 경기도, 가고 싶은 경기도, 가기 쉬운 경기도 등 3대 분야로 나눠 외국인 관광객을 늘릴 계획이다.

우선 ‘매력 있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기존 역사·체험 탐방지 외에 드라마나

아이돌그룹 뮤직비디오 촬영지 등 257곳 1179건의 관광자원을 개발했다. 도 등은 이들 관광지를 영상 제작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가고 싶은 경기도’를 위해서는 국내외 여행업계와 함께 다양한 특수목적 상품개발 및 해외 온라인·미디어 마케팅을 강화한다. 특수목적 상품(Special Interest Travel)은 김치만들기 체험, 단체 간 교류와 같은 특별한 목적을 가진 관광상품을 말한다. 도는 특수목적 상품으로 프로듀스 101 촬영지인 한류트레이닝 센터에서의 K-POP 아이돌 따라 하기, 도내 전통시장과 연계한 한식만들기 체험 같은 10여종을 개발할 예정이다.

경기=김승열 기자 kimsy@

불법 식자재업소 12곳 적발 인천특사경, 입건수사 실시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설 명절 성수 식품을 판매하는 식자재 판매업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원산지 거짓표기 등 불법 영업행위를 한 12개소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단속결과 농축수산물 원산지 거짓 표기 업소 3개소, 무신고 식품소분업소 1개소,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업소 6개소 등을 적발했다.

시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소나 무신고 소분업소, 제조·가공기준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입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산물 등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소는 관할 행정청에 통보하여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토록 통보할 계획이다.

인천=최영주 기자 choiyj@